

# 도, 지역업체 수주 확대 '온힘'

###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올 수주를 전년비 0.4%↑ 설정

전북도는 24일 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등을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는 도내 건설관련 국가기관 공공기관장 및 건설 관련 협회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주재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도내 지역업체 수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관별 건설공사 발주계획 및 지

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토론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지난 해 보다 0.4% 증가한 57.2%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역업체 하도급 목표는 58.2% 지역 건설재사용은 91%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해 수주율을 56.8%로 설정한 결과 초과 달성한 57% (약 1조3,511억원) 달성한 바 있다. 도는 올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유관기관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건설업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올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각 유관기관은 지역건설산

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공사 물량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내업체 수주율을 향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도내 건설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관기관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업체 수주율은 2010년 (47.9%)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2년 53.9%, 2014년 56.6% 등을 거쳐 57년 58%(약 3,624억)을 기록했다.

정영수 기자

# 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입증 쉬워진다 영업비밀 자료라도 제출 강제키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등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회복이 한결 손쉬워진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4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던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허소송에서는 피고(침해

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제출을 강제키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지를 제한해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또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손해액 산정 관련해서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

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했고 디지털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청은 특허침해 입증에 손쉬워지고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국장은 "기술탈취를 억제하고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 및 기술거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재판에 적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모나미, 고급펜 153 블랙앤화이트 출시

모나미가 시크한 올 블랙과 모던한 올 화이트 컬러를 담은 고급 펜 153 블랙 앤 화이트(Black & White)를 선보인다.

153 네오(NEO)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고급 볼펜이다. 단순함 속에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국민 볼펜 모나미 153 볼펜의 아이덴티티를 고급스럽게 재해석했다.

매트한 질감의 무광 재질을 사용해 세련미와 심플함을 강조했다. 0.7mm의 감성적 고급 리필심을 적용했으며 소비자가 가격은 1만8000원이다.



신제품 론칭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25일부터 개성 있는 온라인 편집숍 29cm에서 1000개를 선착순으로 단독 선 판매한다.

이성주 기자

# 체조요정 팬 잡아라

### 노스페이스, 손연재 통한 홍보효과 '쏟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국제체조연맹(ITC)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개인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노스페이스가 웃고 있다.

올해 리우올림픽에서도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도전에 성공할 경우, 노스페이스는 자사 홍보대사인 손연재를 통한 홍보 효과가 쏠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연재 노스페이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연재는 지난 2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 종목별 결선 볼과 곤봉에서 각각 18.550점을 받으며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후프에서는 18.500점으로 동메달을 땀다. 이로써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는 지난 시즌부터 18.5점 돌파를 목표로 잡았지만, 이점 대회까지는 이를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손연재가 개인 최고 점수를 세우는 등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메달 청신호를 밝히면서 노스페이스도 홍보 효과를 쏠쏠하게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손연재는 지난해 봄·여름 시즌을 세우는 등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메달 청신호를 밝히면서 노스페이스도 홍보 효과를 쏠쏠하게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주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영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휴넷에 따르면 직장인 713명을 대상으로 영어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6.1%가 '직장생활을 하며 영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영어 스트레스 강도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8.7%로 가장 많았다. '약간 많다'는 30.2%, '매우 많다' 15.4%로 절반에 가까운 45.6%가 상당한 영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거의 없다'는 13.2%, '없다'는 25%로 나타났다.

주로 영어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회의나 이메일 작성 등 실무에서 영어를 써야할 때'가 4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어 때문에 업무 영역이

좁아질 때' 29.2%, '영어를 잘해서 이직이나 승진 기회를 잡는 동료들 볼 때' 10.8% 등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5.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거의 없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종종 사용한다'는 응답은 21.3%, '자주 사용한다'는 답변은 16.7%였다.

영어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다. '약간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33.9%를 차지했다.

평균 영어공부 지출 비용은 평균 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5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61.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22.6%,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은 10.9%로 나타났다.

박용주 기자

# 전북중기청, 28~5월 2일까지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택)은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과제'를 접수 받는다.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사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사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두차례에 걸쳐 신청 가능하고 1차는 오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는 6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다.

세부 지원으로는 1인 창조기업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해 1인 창조기업 신청건수가 전국 1.127건 대비 전북은 15건(1.3%)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지원규모가 전국 196억원으로 '2015년보다 104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만큼, 전북지역 1인 창조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43)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 익산국토청, 손실보상단가 결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도로하천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2016년도 손실보상단가를 결정했다.

손실보상액은 보상대상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토지 및 물건, 어업권 등)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정(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전비, 영농손실액)하는데, 이번에 결정되는 보상단가는 주거이전비·이사비·분묘보상비 등이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단가를 살펴보면 4인 가구원수 기준 주거이전비는 가족의 소유자의 경우 8백57만7,790원, 세입자의 경우 1천781만8,570원으로 지난해(각 8백38만8,640원, 1천677만1,280원)대비 소폭(약 2.23%) 상승했다.

또 이사비는 33㎡미만의 경우 65만4,360원(2015년 : 59만 420원)으로 전년 대비 9.8% 분묘보상비는 단장의 경우 3백15만4,100원(2015년 : 3백6만8,3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상승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공통단가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한국감정평가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되며, 이번 결정된 보상단가는 2017년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영농손실액은 통계청 2015년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올해 4~5월 경 별도 산정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